

세상의 정의는 항상 변하며 그로인해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사람들에게 소망과 미래를 약속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9절

베이징 동계올림픽 안 본다!

CT,미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종교자유옹호단체 사역과 크리스천 동참 소개

2022년 중국 동계올림픽이 개막식을 포함해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청률로 시작됐다. 가뜰이나 중국 선수만을 위한 편파 판정과 지나친 방역수칙 그리고 열악한 선수촌 식단 등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고 기독교인이나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침해로 악명이 높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 물론 개막식을 지켜본 1,600만 관객은 NBC에게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이전 최저치는 캐나다에서 열린 1988년 게임의 2010만이었다.

이러한 소식은 기독교인들이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한 것처럼 미국 정부의 주도를 따르고 보고된 중국의 위구르족, 기독교인 기타 종교 및 소수민족에 대한 침해에 대응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한 오픈도어스(Open Doors USA)와 같은 종교자유옹호단체를 고무시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

부의 2022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들어본 미국인 중 약 3분의 2가 이에 동의한다.

이번 설문에는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알고 있는 백인 복음주의자 10명 중 6명 이상, 백인 주류 개신교인, 흑인 개신교인, 가톨릭교도,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이 포함된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34%), 백인 주류 지지자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68%). 전반적으로 미국 종교 단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Boycott China's Winter Olympics? Many American Christians Agree Pew survey finds majority of evangelicals and Catholics support US diplomatic boycott. Religious freedom advocates want ordinary believers to abstain also).

퓨 리서치는 또한 미국인들에게 중국을 주로 미국의 파트너, 경쟁자 또는 적으로 보는지에 물었다. 절반은 중국을 경쟁자로 분류했고 1/3은 적으로 분류했다.

미국 기독교인 중 백인 복음주의자의 56%가 중국을 적으로 분류해 대다수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한 유일한 종교인구가 됐다. 이에 비해 백인 주류의 46%, 흑인 개신교의 27%, 가톨릭의 37%도 중국을 적으로 분류했다.

2021년 1월 미 국무부는 신장 북서부 지역에서 중국의 대량학살, 강제노동, 위구르 무슬림 재교육이 집단학살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이 결정은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의 지지를 받았다. 2021년 6월에 남침례교는 위구르 집단학살을 공식적으로 규탄한 최초의 미국 교단이 됐다.

지난달 남침례교 윤리및종교자유위원회(ERLC)는 NBC



유니버설에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중대하고 지속적인 인권침해, 특히 위구르인에 대한 대량학살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종교자유감시단체(CSW)는 1월 28일 다른 240개 NGO(ChinaAid, Family Research Council, Religious Freedom Institute) 단체들과 함께 외교적 보이콧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후원 기업들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오픈도어스는 2022년 세계 감시목록에서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50개국에서 중국을 17위로 선정했다. 동 단체는 중국에서 3,000건의 공격 또는 교회 및 기타 기독교 건물의 강제 폐쇄를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사건의 5분의 3에 해당한다는 수치일 정도다.

지난 12월 미 정치전문지(The Hill)에 대한 기고문에서 미 오픈도어스 회장 데이빗 커리와 전 미국 국제종교자유 대사인 샘 브라운백은 다음과 같이 썼다:

"미국에서...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중국에 있는 동료 신자들의 곤경에 대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중국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미국의 대형교회에서 주일 아침에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국과 다른 곳에서 종교적 박해를 폭로하려는 소수의 조직들에게 인식 제고는 길고 느린 투쟁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인들이 행동할 기회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는 "결국 우리는 적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또 "미국 기독교인들이 침묵을 깨고 중국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3면으로 계속)



KAPC 목사장로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기도는 목사먼저, 장로먼저..."

KAPC 목사장로기도회, 강사 류응렬 목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오세훈 목사)가 주최한 2022년 목사 장로 기도회가 "기도는 목사먼저, 장로먼저..."라는 주제아래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라스베이거스 갈보리교회(담임 조응철목사)에서 대면과 실시간 동영상으로 개최됐다.

강사는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초청됐다. 류 목사는 시간마다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새롭게 무장하며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오후 5시 조응철 목사(교육부 부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장성철 목사(총회 서기) 기도, 이영진 목사(총회 회의록서기) 성경봉독, 오세훈 목사(총회장) 설교와 김성국 목사(뉴욕교회) 축도로 진행됐다.

오세훈 목사는 "다윗의 기도"(시 13: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 사역과 삶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근심을 물리치자. 세상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도 근심이 많았

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며 사탄에게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다. 우리 목사와 장로, 교계의 리더들도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은 갈보리장로교회에서 준비한 저녁찬을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오후 7시부터 저녁 집회와 기도회에 임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유상열 목사 4면	 잘 자는 '적은 집', 이제는 대세다! 16면
--	--	---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chpress.net | 323-737-7699, 800-669-0451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운다

CALLED TO AWAKEN THE LAITY
2022년 4월 25일(월) - 4월 30일(토)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강사 오정현 목사 (서울사랑의교회 담임목사,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 조기등록할인(3월 15일까지): \$420 일반등록비: \$475	대상 담임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
등록 온라인: DMI.SARANG.COM 문의전화: 714.635.3000	주최 남가주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발행인 칼럼
흔적을 남기다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남편 가게의 많은 물건을 도둑맞은 날. 그 아내가 웃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권사님은 밝게 웃었다. 그날 그 소식을 교역자들과 함께 전화로 듣고 있던 나도 웃었다. 어떤 장르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가. 필자는 수사드라마를 좋아한다. 오래된 작품들이긴 하지만 수사반장도 재미있게 보았고 형사클럽보도 그랬다. 요즘 나오는 수사드라마도 재미 있을 터인데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마땅치 않아 보기가 쉽지 않다. 현실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사관들의 소신이 있다고 한다.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소신이다. 수사드라마에서도 그렇다. 모든 범행에는

실낱같은 흔적이라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찾고 찾는 과정이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권사님 남편 가게에 들었던 도둑은 너무 확실한 흔적을 남기고 갔다. 그날 경찰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긴장감이 감도는 수사 과정이 필요 없었다. 도둑이 물건을 욱심껏 챙기느라 자신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간 것이다. 너무 확실한 흔적을 남기고 떠난 도둑,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범행만이 아니다. 모든 삶에는 흔적이 있다고 한다. 시드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반드시 크고 작은 삶의 흔적이 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살다간 자리에 많은 그림들을 남겼다. 믿기지 않지만 그의 작품 활동 10년 동안에 2천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자화상도 꽤 있는데 그의 삶이 그랬듯이 대부분의 자화상은 슬픔을 머금은 모습이다. 그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은 어두운 삶에 빛을 소망하는 그의 내면을 고스라니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작품 중에는 구두를 그린 그림이 여럿이 있다. 웬 구두인가? 그냥 보면 낡은 구두들일 뿐인데 곰곰이 보면 기습 먹먹한 흔적들이었다. 험한 인생길을 이리저리 걷고 걸었던 구두 주인공들의 애절한 삶의 흔적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격언이 있다. "한 번 뿐인 인생, 곧 사라지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들만 영원히 남게 되리" 짧은 인생이 영원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일러주는 격언이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라고 말한 조지 풀러가 그랬다. 그의 짧은 삶으로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기도의 흔적을 남겼다. 그에 대한 책의 제목이 '5만번의 기도응답'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의 옷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도 하였고 젊어서 술과 카드, 그리고 감옥까지 경험했었다. 그는 회심 이후 기도의 삶에 전력했다. 그는 5개의 큰 고아원을 세웠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오직 기도를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기도에도 응답이 아닌 실망을 주지 않으셨다.

며칠 전 필자가 속한 교단의 목사 장로 기도회가 대면으로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였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사방의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다. 말씀을 받고 여러 기도제목을 가지고 귀가 멍멍해질 정도로 크게 합심기도 했다. 기도회를 참석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지인의 장례식이 있었다. 오열하는 가족 가운데 그가 남긴 삶의 뚜렷한 흔적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간 흔적이 무엇이어야 할지도 생각해 보았다. 기도와 장례가 오버랩 되면서 무엇보다 기도가 삶의 흔적이 되고 싶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이론이 아니었다. 단지 가르침의 주제만이 아니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신 공생애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신 여정이셨다. 히브리서 5장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셨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가 위에서도 계속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긴다. 도둑 같은 어이없는 흔적이든, 고흐 같은 예술이든, 물리 같은 기도이든. 그렇다면 나는?

흑인기독교인들, 기독교에 대한 흑색 거짓말에 직면

CT, 도시변증학자들의 '흑인의식' 운동이 조장하는 왜곡된 주장 소개(상)

에릭 마슨(Eric Mason) 박사는 에피파니 펠로우십교회 설립자이자 담임목사로 도시 사역 조직(Thriving)을 통해 흑인 지역사회에서 피해의식으로 병든 흑인들을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있다.

현재 '비판적 의식'이론이 미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마슨 목사는 그 병폐로 '흑인의식'

운동으로 인한 심각한 기독교 왜곡 현상에서 어떻게 하면 흑인 크리스천들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진정한 제자로 나아갈지를 도시변증학적 입장에서 명쾌하게 말해준다(Black Christians Are Confronting Black Lies About Christianity: How urban apologetics contends against the distortions promoted by "Black Conscious" movements).

1991년 부이주립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8, 90년대의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랬듯이 정체성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필드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시기에 대학(특히 흑인대학)에 입학한 많은 흑인들은 가족으로 만든 아프리카 메달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예술적 패턴을 사용해 아프리카를 묘사한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와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일종의 문화적 장신구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는 흑인들이 인종적, 문화적 정체성과 씨름하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할

Muhammad)에 의하면 "소위 감동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한다. 그들은 백인의 기독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이다. 그들은 백인의 종교가 하나님이나

교 변증론자로서 우리는 이 도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오늘날 도시변증학(urban apologetics)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필요한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다.

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역사적 역할을 흑인정신의 파괴에 대한 핵심요소로 보고 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백인 압제자들이 흑인들을 속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유럽 사람들의 창작물로 본다.

그리고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서구의 노예제도시대에는 인신매매를 정당화하는 거짓 기독교가 있었다. 이런 형태의 기독교 지지자들이 노예들이 복음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노예성경'이라는 축약된 성경 번역본을 만들었을까? 그렇다. 또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벧전3:15에서 유래한 변증학, 유1:3에서 성경적 기초 설명 고전적, 실증적, 역사적, 경험적, 전체론적 변증학 등 다양

수 있다. 아마 학생회에서는 서적들과 청나일, 백단향, 유향, 몰약 오일을 판매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판매대는 백인들이 흑인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도록 억압한 진실 즉 흑인 정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흑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따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것은 스톱홀름증후군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미국에서 흑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내재된 지속적 긴장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마음에 각인돼 있다.

흔히 "흑인의식" 공동체라 부르는 단체 지도자들의 다 음 인용문들을 살펴보자. 오랜 기간 이슬람 국가 지도자였던 엘리아 무하마드(Elijah

예수 심지어 어떤 선지자들에게서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전능하신 알라(신)가 아니라 백색 인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역사가이자 고대 케메틱(이집트) 왕국의 자칭 사제인 자바리 오사제(Jabari Osaze)의 주장도 살펴보자. 그의 저서 '7개의 작은 하얀 거짓말: 흑인 자아상을 파괴하려는 음모'에서 "어릴 때 주일학교 수업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은 상자에서 모세와 노아의 종이 인형을 꺼냈어요...그들은 내 옆집 이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예복을 입은 늙은 백인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의 모든 영웅이 백인이라는 사실이 주입됐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은 흑인들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인지부조화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기독교

서구 백인 유럽 기독교가 줄곧 흑인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를 버리듯 흑인의식공동체가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는 과오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들은 진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하지 않았다. 도시변증학은 이 단체가 조장하는 거짓된 기원 이야기를 반대한다.

흑인 그리스도인들은 흑인 의식공동체에 의해 항상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항상 큰 비난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납치하고 노예로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흑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기독교를 처음 접한 것이 노예무역을 통해서였다고 배웠다. 많은 사람들은 노예

불리는 어떤 사람들은 흑인들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서 모든 인간에게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더럽혔나? 그렇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흑인 공동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확고한 신학적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흑인의식운동의 지지자들이 제기한 반대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시대에는 판도가 달라졌다.

반대의견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간다. 기독교에 대한 거짓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흑인의식운동과 기독교에 대한 흑인의 다른 반대운동을 다루는 특별한 도시변증학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1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5. 졸업생은 목사안수 받고 목회 또는 선교사로 사역가능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하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범죄가 높아지는 도시들과 그 이유(상)

여기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던 캘리포니아, 그리고 한인들과 여러 인종들의 마음과 땀이 배어 있는 Los Angeles입니다!

혹시 아직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못 받으셨나요? 혹시 크리스마스 때 보낸 선물박스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아직 안 갔거나 또는 누가 보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받아야 할 물건이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했다면 어쩌면 옆 사진에서 보이는 박스들처럼 이미 부서지고 흙집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와 새해 선물로 보낸 것들이 도착 안한 이유는 저희가 부쳤던 박스들도 이 박스들 중 하나인 걸 이번에 우체국에 직접 가서 알아본 결과 그들 시간이 걸려서 알게 된 사실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서진 박스들을 청소하고 있는 열차회사 사람들

을 만큼 아프리카도 이 정도가 아니라고(아프리카계의 흑인경찰의 말) 할만큼 처참합니다.

또한, 열차도둑들은 처음에는 각자 훔치거나 했던 거 같은데 몇 달 동안 훔치는 실력들과 그 숫자들은 꺾단과 조직적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떼거리로 모여 크고 작은 물건들을 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차들은 LA를 거쳐 미국 전역으로 수많은 박스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기업용, 마켓용 물건들도 나르는데, 개인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박스들 또는 선물로 보내지는 박스들, 기업용 등등 주로 Amazon, Fedex, USPS, UPS 심지어 코비드 테스트 키트(COVID Test Kit) 등등을 나르는 화물 기차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런 황당스런 일을 계속하여 또다시 당한 Pacific 열차회사는 말하길 '계번 뉴섬 주지사 및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둑에 대한 처벌을 매우 낮추어 놓았기에 경찰들이 이런 대낮의 도둑을 잡아도 금방 풀려난다. 따라서 신고를 해도 계속 케이스가 밀리고 시간만 흐를 뿐 이런 열차 도둑들을 잡고자 하는 경찰들도 거의 없고 로스앤젤레스 경찰들의 일손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몇 달째 이런 일들을 계속 신고해왔어도, 지금 캘

리포니아는 주정부가 경찰들의 숫자를 삭감(Defund Police)한 상태라서 지역마다 경찰들의 숫자가 범죄 사건들에 비해 터무니 없이 모자란 경우인지라 경찰을 불러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시장과 지역리더들과 같이 나눠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지금 이미

Misdemeanor로 바뀐) "만일 잡히면 금방 풀려나가거나 잡히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도둑을 잡을 수 없는 경찰, 잡아도 도둑의 편을 더 많이 들어주는 법안들...? 잡아도 "왜 잡느라고 고생하니" 라는 눈빛으로 어깨를 피고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가는 어제 데려온 도둑의 으스스거리는 걸음... 과연 이것이 캘리포니아 맞을까요?

아래 사진은 인터뷰 중 "잘못된 사회정의를 만들어가는 mean spirited(못된 영혼), anti-humanistic ideology(비인간적인 개념/사상)을 가진 자들, Cruel(매우 사악)하다고 말하는 중.



로스앤젤레스, 열차도둑 지난 11월 이후 160%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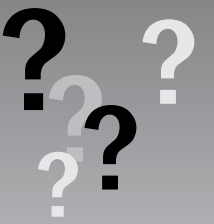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주정부가 계속 통과시키고 있는 악법들 때문인데 한 예로 이제는 100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큰 범죄(Felony)도 아닙니다. (950달러까지는 "Petty theft" 라고 새롭게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 Penal Code 459.5 PC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등 도시마다 이런 도둑들은 경찰에 불려가도 이제는 작은 도둑이라고 별척이 매우 낮아져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 도둑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은 사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시애틀, 오리건, 뉴욕, 시카고 등등 대 도시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다음 회에는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동영상들은 Tvnex.org 에 가시면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10년째 되는 1.5세 목사입니다.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죽음과 둘째죽음은 어떻게 다르며 그리고 첫째부활과 둘째부활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하버에서 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크게 4가지 질문입니다. 1)첫째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혼이 육신과의 분리(separation)되는 것을 말합니다. 2)둘째죽음은 몸과 영혼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계20: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을 신학적으로 계천이라고 합니다. 몸과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3)첫째부활은 계시록 20장 4-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 노릇한다"(4,6절)는 말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첫째부활이라는 말은 계시록 20:5절에 처음 나옵니다. 첫째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을 때에는 첫째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신자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첫째부활로 해석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들은 첫째부활을 예수 믿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함

첫째부활은 낙원에서 영생 누리는 것 둘째부활은 예수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

니다(김승곤 목사, "요한계시록의 참뜻", p.342). 그러나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첫째부활을 예수 믿고 죽은 신자의 영혼이 하늘의 낙원에서 살아 천국의 영광과 왕 노릇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필립 E. 휴즈(Phillip Edgcumbe Hughes) 박사는 그의 책 "요한계시록"에서 계20:4절을 주해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첫째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복이 있다. 비록 자신이 죽어 육신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지라도 영혼은 살아 첫째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썼습니다.

고신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변종길 박사는 화란 캠퍼신학교 출신인데 그의 책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첫째부활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낙원(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계14:13). 곧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죽은 자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을 때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복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첫째부활의 영광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천상입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리고 계20:4-6의 내용은 이 땅이 아니라 천상에서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부활의 영광은 천상에서 일어나며 그래서 4절에 천상의 보좌가 나오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 광경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보좌의 장면인 것입니다. 4)둘째부활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버티며 쌓는 삶

운동을 아주 잘하지 못하... 만 나는 여러 운동경기 관람을 무척 좋아한다.

들이 프로팀을 출범하고 농구, 배구, 야구 프로경기에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스타선수들이 배출되며 많은 인기가 있던 시기와 맞물리기도 한다.

에 상관없이 2월 13일 경기 후 14일 월요일을 시의 모든 학교들이 일일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하다.

를 얘기하며, 특별히 2009시즌 EFL리그 위건 애슬레틱FC로 이적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1년을 겨우 채우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본인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아쉬움을 얘기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 하나님 구원의 사랑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값없이 받고 주님의 자녀로 소속된 나는 삶속에 열매가 버티며 살고 있는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운 상황을 이겨 내려하는 자아의 강한 의지와 노력이 담긴 단어이다. 한국선수뿐 아니라 전 세계 축구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 스카우트되어온 후배에게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선수가 되었으니,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가장 큰 것을 이겨낸 선수의 자격으로, 그 힘으로 버티라는 박지성 선수의 안타까운 조언과 격려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목회자들, 인기보다 그리스도 성품 닦기 추구해야”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유명 목회자나 더 나은 예배 환경을 갖춘 교회로 떠나는 현상을 목격했다.



텍사스주 파라마운트침례교회 앤드루 헤베르 목사는 7일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워치에 기고한 ‘목회자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목표’라는 글에서 “어떤 목사도 유명 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선 안 된다.

그는 “대형교회로 떠나는 성도를 본 많은 목회자는 성공하는 목회자를 흉내 내고 경쟁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며 “많은 목회자에게 성공을 이상화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했지만 팬데믹 기간 더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마5-7장)에서 본질적 해답을 찾았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건 군중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법이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이었다는 것이다.

프린스턴 상징 ‘밀러체플’ 이름 바뀐다

뉴저지 프린스턴신학교(총장 크레이그 반즈)가 이 대학 두 번째 교수였던 새뮤얼 밀러를 기념해 만든 ‘밀러체플’(사진)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학교 연구에 따르면 밀러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노예제를 반대하면서도 자신은 노예를 고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프린스턴신학교 이사회는 “밀러를 기념하며 세워진 예배당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한 건 대학공동체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미래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프린스턴신학교 이사인 임성민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미국 대학가에서는 인종 차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미국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프린스턴신학교도 몇 해 전부터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조직했고 대학과 관련한 역사를 살살이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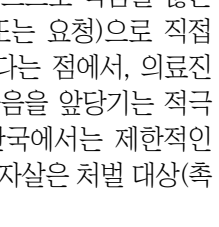
과 흑인 연구소를 비롯해 흑인 석좌교수를 모시기도 했으며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라이프 투게더’라는 과목도 개설해 인종 감수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4000여명이 재학 중인 미국 최대 신학교인 남침례신학교 이사회는 노예를 소유했던 이 대학 설립자들의 이름을 대학의 여러 건물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회는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도 불완전했지만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학도 설립자들의 이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유럽 조력자살 논란 속 “죽을 권리란 없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고귀함이나 이른바 ‘조력자살’(또는 조력죽음)에 대해 교계도 목직 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암 투병으로 고통 받던 20년 지기 친구의 요청에 살해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는 보도는 조력자살을 향한 사회 인식이 일부 반영된 측면도 엿보인다.

13일 외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이탈리아 의회에서 논의 중인 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해 “죽을 권리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력자살 합법화가 잇따르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안락사와 함께 조력자살을 허용한 이래 벨기에(2002년), 룩셈부르크(2009년)가 합류했다.

한편 양쪽 입장을 절충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윤리·공공정책센터의 라이언 앤더슨 대표는 줄곧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제도 및 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떠난 지 1년...연재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소속 렌던 브라운 하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등 공화당 유력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반대편에 섰다.

미 언론은 공화당의 분열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아직 확고한 상태여서 당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0일 뉴욕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 “나는 2016년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일한 가장 초기의 지지자”라는 내용의 동영상 제작을 트위터로 공개했다.

미 언론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은혜를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국민의 대표가 당 지지자를 감동하게 하려는 특이한 방법”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시기’ 주장을 비난하고 있지만 여론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CNN은 최근 여론조사(지난 1월 10일부터 2월 6일 성인 1527명 대상)에서 ‘선거가 국민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 44%만 신뢰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CNN이 지난해 의회 폭동 직후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 응답이 59%로 부정 응답(40%)을 19% 포인트 앞섰다. 1년 만에 선거 신뢰에 대한 여론이 뒤집힌 셈이다.

공화당원 사이에서의 선거 불신 여론은 지난해 9%에서 올해 32%까지 무려 23% 포인트나 급증했다. 중도층 사이에서도 같은 의견이 35%에서 48%로 13% 포인트 늘었다.

CNN은 “13개월 만의 놀라운 반전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하지 않는 그룹들도 미국의 선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의회 폭동사태 책임론도 힘이 떨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는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43%라고 밝혔다.

의회 폭동사태 책임론도 힘이 떨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센터는 최근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43%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교섭을 아직 평은...”

지난 7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위기관리재단 등 선교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외교부가 지난 달 25일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주(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다는 내용과 함께 우크라이나 체류 한인 교민에게 비상연락망을 유



지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위기관리재단은 해당 내용을 선교 관련 기관과 교회에 알렸다.

위기관리재단 전호중 대표는 13일 “현지 선교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나 상황은 평온하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긴박해질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도 짐을 챙겨 놓고 국내 선교단체들과 비상전화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폴란드 현행 법령에 따라 ‘우크라이나-폴란드’ 육로 국경 통과를 제한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크리스치언티투데이(CT)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지만 선교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9일 보도했다. CT에 따르면 대부분 선교사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고 인근 국가로 이동한 일부 선교사는 선교 사역의 확장을 고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대학원의 조슈카 토카 선교사는 최근 가족과 함께 이웃 나라로 이주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8년간 현지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저항하라...독립 위해 싸우자”

러시아 침공 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선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행진하는 등 러시아를 성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선 수천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힘차게 국기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행진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반대하고 군대를 집결시킨 러시아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도 높았다.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안나한인교회)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2)-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 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 하라고 하셔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늘 불안하고 모자라고 위험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지키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과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현재의 일들을 행통케 하는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신적 보호자의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동하신 우리 주님이 일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기도가 지켜주고 기도가 도와주고 기

도가 해결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절망적인 삶의 현실을 감당해야하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예수님의 기도 복음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절망적 인생을 극복하고 성공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쓰는 저나 읽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자 인생의 자원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뜻 하시는 바를 이루게 되는 축복의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도하여 기도의 인성 자원이 풍부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원이 결핍된 사람은 기도를 가진 사람의 행복과 축복에 동참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늘 스스로 기도생활에 자기를 투자할 함으로 기도가 있는 행복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결을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하는 기도를 넘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의 행복의 크기가 클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웃 성도들 곧 친구들의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주는 주의 종들이 있는 교인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교인들의 행복은 여러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교육받는 행복도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을 받는 행복도 있습니다. 교인이 되면 이런 행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기억시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기억시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주변의 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를 기억시키는 지혜로운 기도 전략가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억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살람. dik0184@yahoo.com

조나단 에드워즈를 왜 연구하는가? (하)

에드워즈대학교 총장, 예일대 에드워즈센터 상임연구원 정부홍 박사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

그 이후 그녀는 예일대 설립자 중 한 사람인 뉴헤이븐교회의 목사였던 제임스 피에르폰트의 딸 사라 피에르폰트와 결혼했다. 그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4세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상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지만 에드워즈는 비범한 여자였던 것을 일찍부터 알아 차렸다. 4년간의 연애를 한 후 1727년 2월에는 자기 외할아버지 솔로몬 스토다드가 시무하시는 노스 앰튼교회의 부목사로 안수 받고 7월에는 뉴헤이븐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2년 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시작하며 큰 부흥을 1734년과 1740년에 두 차례 경험하였다. 그것이 미국교회사에 등장하는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서 소위 “미국영적대각성”이다.

영국 청교도들이 미신대륙에 정착한 이후 100년 동안이 지날 때 이민 1세대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은 점차 쇠퇴하고 자유주의 신앙과 사상들이 만연하고 2,3세대도 그런 시류에 합류하여 신앙적 해이와 도덕적 타락이 창궐해가고 있었다. “젊

은이들은 허다하게 밤이면 쏘다니며 술집에 가고, 음란 행위에 빠져 미쳐 있었다...”고 에드워즈가 목격한 대로 기술했다.

그때에 뉴저지 지역에서는 데오도르 프릴랭귀이젠 이라는 화관에서 이민 온 목사께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는 부흥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흥의 불길이 점화되어 인근 지역으로 그리고 뉴잉글랜드 전역으로 확대되어갔다.

그때에 에드워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이란 설교를 하며 여러 곳에서 부흥을 일으켰다.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술집은 텅텅 비고 예배당은 구원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단기간 내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과 정치와 문화 그리고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올바른 설교자들과 지도자들이 요청되어 유명대학들 프린스턴(1746), 다트머스(1769), 브라운(1764), 콜롬비아(1754)가 이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사회와 정계에 적극적 참여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교파교회의 분열과 다양한 교파의 출현, 인디언 선교운동과 사회봉사와 노예해방운동이 붐을 이루었다. 이런 결과들은 미국 독립정신과 건국정신의 토대를 놓게 하였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든 죄인들” 설교로 뉴잉글랜드 부흥 일으켜 다양한 교파출현, 인디언선교운동, 사회봉사, 노예해방운동...미 독립건국정신 토대 놓아

회 사역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으며, 에드워즈도 기도하며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설교를 연속으로 하였을 때에 사람이 감화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또 휘필드 목사가 방문하여 설교함으로써 에드워즈가 시무하던 마을에서 큰 부

신자들이 구원받았는지 자문하며,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요청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밤낮으로 근심하고 우울해지기까지 했다.

이런 회심과 회개와 부흥은 뉴잉글랜드 사람들의 삶과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흥의 불길은 희미하고 또 탈선하여갈 때 이미 화석화된 회중들은 22년간의 수고하며 대각성으로 인도했던 에드워즈를 1750년에 230 대 23이라는 불신임으로 해임시켜서 차로 한 시간 넘게 서쪽에 위치한 스타



정부홍 박사

브릿지 라는 인디언 마을에서 선교사 및 교사로 활동하며 그곳에서 중요한 결자들 곧 “자유의지(1754, 새물결출판사, 2017)” “천지창조의 목적” 및 “덕의 참된 본성(탈고1757, 발행1765)” “원죄론(탈고1757, 발행1758)”을 마치고 1757년 12월 프린스턴대학의 학장으로 초빙 받고 3개월 만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목숨을 잃은 것처럼 애드워즈도 그 당시의 전염병 천연두주사 부작용으로 소천하면서 다음 같이 유명한 유언을 남겼다.

애드워즈의 마지막 유언 (Last Will)

“사랑하는 딸 루시(Lucy, 5th)야, 이제 잠시 후면 너를 떠나야 하는 것이 내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의 가장 친근한 사랑을 전한다.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비상한 연합(uncommon Union)은 내가 믿기에 영원히 성취된 것이었으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큰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기를 희망한다. 내 자녀들이여, 지금은 아비 없는 자로 남게 되지만 이 일이 너희 모두에게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 장례식도 사위 아론 버러(에스터, 3th) 같이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조그만 여분의 금전이라도 남게 될 터인데, 그것으로 자선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Timothy Edwards, "Some Things Written Concerning My Very Dear and Honored Father, Mr. Richard Edwards"(Short Version), RELife edited Family Writings and Related Documents, Ed. Jonathan Edwards Center. Works Online Vol. 41.

PeterBHjung@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Titl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Includes contact info for churches like Galbraith, Danjok, Gongmaeri, etc.

